

-(으)ㄴ/는 법이다

원래 그런 법이다, 당연히 ~하다

일반적인 진리를 세상의 법칙처럼 말합니다. 법은 여기서 법률이 아니라 일이 늘 그렇게 되어 가는 이치를 뜻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	-는 법이다	지나가다 → 지나가는 법이다
형용사	-(으)ㄴ 법이다	어렵다 → 어려운 법이다
ㄹ 받침	ㄹ 탈락	힘들다 → 힘든 법이다
부정	-지 않는 법이다	변하지 않는 법이다
띄어쓰기	법은 명사	지나가는 법이다
쓸 수 없는 경우	개별 사건	어제 온 법이다(×)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는 -는 법이다, 형용사는 -(으)ㄴ 법이다를 씁니다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법은 띄어 씁니다.

이 표현은 개별적인 사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를 단언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법이라는 삶의 이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, 속담이나 조언 같은 어조를 씁니다.

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전할 때는 쓸 수 없습니다. 어제 비가 온 법이라는 단순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비문입니다.

거의 같은 뜻의 표현은 -기 마련입니다. 차이는 미묘합니다. 법이라는 정해진 규칙처럼, 마련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경향처럼 들립니다.

■ 예문

- 1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법이다.
- 2 노력하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 법입니다.
- 3 처음에는 누구나 서툰 법이에요.
- 4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다.
- 5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.
- 6 직접 만들면 애착이 생기는 법이지요.

■ 비교

-기 마련이다
매우 비슷합니다. 법이라는 주장을 규칙으로, 마련이라는 필연으로 표현합니다. 대부분의 화자는 두 표현을 바꿔 가며 씁니다.
실수하는 법이다. (원래 그렇다) / 실수하기 마련이다. (그렇게 되기 마련이다)

-(으)ㄴ/는 것 같다
것 같다는 개인적인 인상을 완곡하게 말하고, 법이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단언합니다. 확신의 정도에서 양 끝에 있습니다.
힘든 것 같아요. (힘든 것 같다) / 처음엔 힘든 법이에요. (처음엔 원래 힘들다)

-는 것이다
-는 것이라는 특정한 점을 설명하거나 강조하고, 법이라는 눈앞의 경우를 넘어 일반화합니다.
그래서 늦은 것이다. (그래서 늦었다) / 서두르면 늦는 법이다. (서두르면 원래 늦는다)

■ 주의

- ✗ 어제 비가 온 법이다.
- 어제 비가 왔다.
법이라는 일반적인 규칙을 말합니다. 과거의 개별 사건은 일반 과거형으로 씁니다.
- ✗ 처음에는 누구나 서툰 법이 있어요.
- 처음에는 누구나 서툰 법이에요.
이 구문은 있다가 아니라 이대로 끝납니다. 법이 있다는 '법률이 존재한다'는 뜻이 됩니다.
- ✗ 일이 힘들는 법이다.
- 일이 힘든 법이다.
힘들다는 형용사이며 -(으)ㄴ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